

#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03 **03** 2016



유신론적 진화론8

## 유신론적 진화론의 시작은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진화론의 등장과 함께 만들어진 여러가지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하여 다루어 왔다. 그렇다면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은 어떤 역사적 변화에서 일어났을까? 중세 말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유럽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각성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변화였다.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몸부림이 바로 종교개혁(1517년)이며, 한편 비슷한 시기에 교회 밖에서도 일어난 변화를 계몽주의라고 부른다.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성에 대한 신뢰이다. 이 두 변화가 일어난 때부터를 우리는 근대라고 부른다. 근대의 시작인 계몽주의가 태동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데카르트(프랑스, 1596-1650)이다. 잘 알려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의 말은 계몽주의 철학의 근본 원리가 되었다. 즉 사고하고 있는 자신을 첫 시작으로 본 것이다.

이성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게 넣어주신 참으로 귀중한 사고의 능력이지만, 이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바르게 사용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beginning, 시작)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즉 여호와를 통하지 않은 지식과 지혜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며 결국 미련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순서와 반대이다. 실재는 거꾸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난 후 생각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존재가 먼저이고 생각이 나중이다. 하나님을 뒷전에 놓은 교만한 발상에도 불구하고 이 찝박한 문장은 유럽 사람들의 사고의 자세를 바꾸는데 중요한 획을 긋는 명언(!)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18세기부터 자연 과학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과거를 알고자 하는 역사 과학 영역까지 번져나갔다.

이런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지질학에서 발생했는데, 바로 1833년 당시 변호사였던 찰스 라이엘에 의한 “지질학의 원리(Principles of Geology)”의 출판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라는 명제를 내세웠다. 오늘날 일어나는 지질 과정의 모습을 보고 과거를 밝히려는 것이다. 즉 과거 기록을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일어나는 느린 침식과 퇴적 과정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자는 의미이다. 라이엘의 자세는 앞에서 언급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 있던 증인을 통하는 것이 상식인데, 과거에 그 자리에 없던 현재 사고하는 자신의 이성으로만 과거를 알자는 상식과 거리 먼 명제를 내건 것이다. 라이엘 역시 데카르트와 같이 사고의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라이엘이 언급한 이 한 문장은 당시 근대적 사고와 맞물려 지질학의 명제가 되어버렸고, 이 사고의 틀(패러다임) 하에서 지구를 해석하던 시기부터를 현대 지질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사고의 틀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지질학자들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가 발간된 이래로 지질학자들의 마음에 지구는 깎이고 깎이는 오랜 침식 과정과 쌓이고 쌓이는 무구한 기간 동안 퇴적 과정을 경험했다는 편견이 자리잡게 되었다. 즉 지질학자들의 패러다임이 격변설에서 동일과정설로 바뀐 것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지구의 과거 역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울러 과

거에 지구의 지형을 바꾸는 격변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심어 주게 되었다. 당연히 이런 사고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완전했음과 과거에 홍수심판이라는 대격변을 말하는 창세기 기록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찰스 다윈은 라이엘의 명제에 매력을 느끼고 생물에 적용시켜 1859년 “종의 기원”을 출판했다. 그리고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한 종 안에서 점차적인 변화를 거치며 다른 종으로까지 변화했다는 진화론이 탄생되었다. 이 진화론적 사고는 라이엘의 사고와 맞물려 등장하자마자 과학적 검증 기간도 없이 유럽을 휩쓸었으며 빠르게 보편화되어 버렸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다’는 철학이 눈에 보여지는 실체로서 지구를 넘어 이제는 생물로, 더 나아가 인간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로 전락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존재시키신 하나님을 빼고 이성만 가지고 자신을 알고자 할 때 결국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 동물 중에 하나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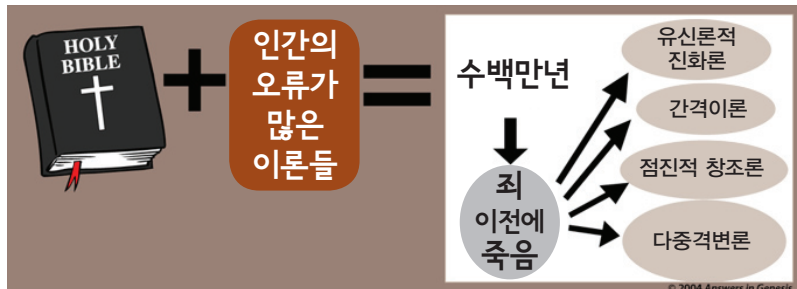
|             |       |
|-------------|-------|
| 후삼기         |       |
| 제 3기<br>신생대 |       |
| 중생대         | 백악기   |
|             | 쥐라기   |
|             | 트라이아스 |
| 고생대         | 페름기   |
|             | 석탄기   |
|             | 데본기   |
|             | 실루리아기 |
|             | 캄브리아기 |

진화론 탄생 이후에 아주 중요한 도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바로 지질시대표(또는 지질계통표)이다. 소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식으로 간단한 생물의 화석부터 복잡한 생물의 화석을 진화 순서로 나열한 표이다. 이 표는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13년 후인 1872년에 라이엘에 의해 기본적 틀이 만들어졌다(표). 이 표는 지구가 진화 역사를 겪었던 것처럼 한 눈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실제로 지질시대표가 보여주듯이 화석이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 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진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이 화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확인한 과학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질 시대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오래된 지구 나이와 진화론의 신뢰 하에서 화석들을 책에 모아온 진화의 창작품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그림은 지구와 인류의 역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지질시대표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 굴레 속에서 화석, 지층, 지형 등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를 만든 라이엘은 스스로를 “지질학의 영적인 구원자며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학을 해방시킨 자”라며 자찬했다. 왜냐하면 이 지질 시대가 옳다면 모세가 쓴 창세기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역사이기 때문이다.

지구 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질시대표는 19세기 말에 시작



하여 20세기를 거쳐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역사적 순서로 볼 때 지구 나이를 계산하려고 시도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방법은 20세기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므로 지질시대표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그 화석의 나이를 측정할 방법도 없었던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이 지질시대표를 보며 지구가 수천만 년의 까마득히 오래된 역사를 가졌을 것이라고 여겼다. 측정보다 믿음이 먼저였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 검증 이전에 막강한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과학자가 한 번도 관찰한 적이 없는 지질시대표는 유럽으로부터 점점 보편화되어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게 되었으며 결국에 각 나라의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다.



서양에서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를 보여주는 지질 시대가 보편화되고 학교에서도 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 다른아닌 교회였다. 이런 진화론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도 진화 역사와 상반되는 성경 역사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졌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 역사, 특별히 창세기 기록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고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진화 역사를 신뢰하는 신학자나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지질 시대와 성경 역사를 함께 엮은 유신론적 진화론들을 만들어 발표하기 시작했다.

진화론과 성경을 타협한 이론들은 성경보다 진화론의 신뢰 하에서 등장한 이론이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도 함께 변해갔다. 또한 타협 이론을 만든 사람이 진화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용하고 부정하는 정도의 차에 따라 그 주장도 다양해졌다.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소위 진화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극단적인 유신론적 진화론부터 진화 과정은 부정하지만 지질 시대의 순서는 인정하는 점진적 창조론, 오랜 연대를 성경 어딘가에 끼워 넣으려고 시도한 간격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들은 과학적 성경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할 때마다 많은 교회에서 소개되었고 결국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 지난 8주를 돌아보며...

### 7기 ITCM 이렇게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원주, 지훈, 다은, 소정의 첫 날을 회상해봅니다. 캘리포니아 LA근교의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에 도착했을때, ITCM에 지원한 후로 얼마나 이 날을 고대하였던가 감회에 젖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이자 우리의 숙소인 집에 짐을 풀고, 우리는 내일 바로 이어질 첫 필드트립을 고대하며 잠자리로 들어갈 줄 알았지만, 시차적응을 위해 최대한 초저녁에 깨어 있어야 했던 우리에게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달동안 우리가 잠시 쉴 때마다 있게 될 정원용 벤치를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조립에 서툰 우리 4명은 나사를 끼웠다 풀었다를 연신 반복하고, 조립했다 해체했다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라고 장담했던 지훈 형제의 말이 무색해졌지만 우리는 어느새 어색함을 잊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면서 팀워크도 생기고 장난과 웃음 속에 의자조립을 마쳤습니다. 조립을 다 하기 직전까지도 눈치채지 못했던 반전은 우리가 조립한 것이 흔들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뿌듯함 속에 의자에 앉아서 시승(?)을 하며 사진 한 컷 남겼는데, 그게 저희들의 첫 사진이 되었습니다.

### 우리의 하루는 매일 아침 성경공부로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ITCM의 전통 중의 하나인 로마서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로마서를





함께 읽고 또 한 절 한 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격이었던 것은 항상 로마서로 시작하였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넘나들며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복음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복음은 참으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11장 성경공부도 병행했는데, 그동안 무수히 많이 읽었던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진지하고 자세히 다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세기가 아주 새롭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실감났으며, 세미나 시간에 들은 강의 내용과도 잘 연관되어 좋았습니다.

### 창조과학 강의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한 것은 성경의 무오성,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철학, 언어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주차에 있었던 '창세기 홍수' 강의는 그 주에 읽었던 '노아홍수콘서트' 내용과 연결되고, 지질학적 증거들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들인지 깊이 알게 해주었습니다. 3주차의 '생명의 기원' 강의를 통해 생명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지 새롭게 느꼈고, 아무리 긴 시간을 준다해도 결코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무현 박사님께서서는 전공분야인 조선공학계 입장에서 방주의 디자인과 홍수 당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다닐 수 있었던 구조, 그리고 어떻게 심판 받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무오한 계시의 책임을 드러내는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궁금증이 많았던 천문분야의 강의는 이동용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주의 정교한 질서, 그 질서 속의 개성을 보며 신비로웠고, 무엇보다 지구의 독특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생명들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위해 지구를 창조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우주 모델을 다루면서 빅뱅설이 결코 우주의 기원에 관한 유일하거나 필연적인 모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6주차에 다룬 근현대에 발흥한 사상들과 진화론과의 연관성을 살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자연주의와 인본주의 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된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북쉐어링과 북프리젠테이션

'책 읽느라 많이 힘드셨죠? 읽다 보면 앞의 내용이 생각이 안나서 고생했죠?' 노휘성 선생님과 함께 하는 북쉐어링이 있으니 걱정 No~ No~!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총정리 할 수 있는 북쉐어링 시간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중요 포인트마다 적절한 문제로 계속해서 사고하며 책의 내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8주동안 우리는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하지 않는가하는 주제로부터 창세기 1-11장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조명하고 성경 전체의 관점 속에서 그 사실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책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 이론들도 살펴보고, 그것들을 교회로부터 막아낼 영적, 지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처 방안까지 고민하고 배우며 나누었습니다. 나의 관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주위에 어떻게 배운 것을 나뉘어야 할 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질 답사:** 노아홍수 전기 지층들과 후기 지형들, 빙하지형까지 직접 가보다  
여기는 아리조나!!

그랜드캐년, Horse Shoe Bend, 글랜캐년댐,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을 답사하며 노아홍수 때 전지구적 격변에 의해 발생한 여러 지형들을 보았습니다. 막대

한 규모의 연속적 퇴적, 그 후에 일어난 융기 운동의 결과 형성된 고원들과 격변적인 배수 과정으로 형성된 침식지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은 자연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에 심취했지만, 저희 훈련생들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 사건들의 증거들을 봄과 동시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모여 드리던 예배를 필드트립 중에도 이어갔는데, 하루동안 자신이 느낀 것을 나누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빙하지형 답사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들어와 데쓰밸리를 거치고, 오웬스 밸리를 내려오며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따라 빙하지형들을 보았습니다. 서크, 모레인과 같은 지형들을 직접 보니 흥미로웠고, 알라바마 힐스에서는 빙하에 의해 기존 화강암들이 깎인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들까지 빙하의 영향권에 있었던 때를 그려보며, 해빙기



에 그 막대한 빙하의 흐름이 쓸고내려간 흔적들 속에서 그 규모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창조과학선교회를 통해 발행되는 소식지-

### Creation Truth 발송 작업 동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약 2000부나 되는 뉴스레터를 단 두 시간만에 똑딱 발송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단순 노동(?)으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주소를 붙이며, 도착하는 곳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복음이 전달될 것을 생각하니 창조과학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길

주일마다 처음 가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예배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Calvary Chapel은 걸어서 예배드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갔지만, 부산 출신 사모님의 남편이 신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새해를 위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곳에서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는 LA사랑의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엘바인 디사이플스교회, Mariner's Church, Grace Community Church 등을 방문했고, 매 주일마다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곧 교회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 박물관 견학

세 번째 필드트립은 박물관 견학이었습니다. LA에 있는 Page Museum에서는 빙하시대에 타르 늑에 빠져 화석이 된 수많은 동물들의 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Griffith Observatory를 방문하여 천체 관측의 역사 및 태양계와 우주에 관한 많은 전시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웠던 것은 박물관과 천문대 둘다 모든 설명이 진화론적인 연대와 해석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날 견학을 통해 성경적인 우주와 지구의 역사만을 통합적으로 담은 훌륭한 박물관이 곳곳에 세워지길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밤마다 가졌던 기도회

저희 ITCM 7기는 매일 밤 9시에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종일 공부하느라 지치고 피곤했지만, 기도회 시간을 통해 영육간에 큰 회복을 경험했고, 훈련생들이 공동체로서 더 끈끈해질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찬양과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매일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루 일과 중 가장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8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며 우리의 창조주가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길 다짐합니다. 그리고 7기 훈련생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달려가는 끈끈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에 감격하며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열심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ITCM 7기가 되겠습니다. 섬겨주신 이재만 선교사님, 노휘성 선생님, 여러 강사님들, 심명에 집사님, 두 분 간사님! 감사합니다.

천원주, 조다은, 박철웅, 윤여균, 김준혁, 조성령, 홍주영, 이소정, 김지윤, 박지훈 일동



##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

지난 1월 4-7일 17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미 전국 각지에서 49명의 유학생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 날부터 진지한 질문들이 오갔으며, 답변과 함께 현장에서 그 증거를 보며 자신이 믿고 있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랜드캐년과 브라이스캐년에서 눈 온 뒤의 경관은 더욱 멋졌습니다. 또한 김무현 박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지층 실험에 대한 numerical modeling에 대한 결과, 방주의 안정성, 성경 변증 등을 강의 해주셔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이번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는 3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저희 창조과학선교회로서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 분의 후원자를 통해 귀한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1월 첫 주 월-목 나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 대구 참좋은교회

지난 1월 26-29일 대구 참좋은교회(담임목사 이윤찬)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나흘간 성경의 증거들을 보며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한국에서 등장한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염려와 다음 세대들을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 참석시켜야겠다는 희망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성인들에 이어 내년 겨울에는 젊은 이들이 꼭 참석하는 기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창조과학선교회 강사인 이동용 박사님도 참석하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 ITCM Field Trip

지난 해 12월 말부터 7기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10명의 학생들이 8주간 강의, 독서, 현장 실습 등 집중적으로 창조과학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18일 나홀간 홍수 심판과 빙하시대를 연결할 수 있는 장소인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데스벨리, 알라바마 언덕, 오웬스 계곡 등을 돌며 그동안 실내에서 배웠던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에는 LA 중심에 있는 La Brea Page 박물관을 방문하여 매머드를 비롯하여 빙하시대 화석들을 관람하고 Griffith 천문대도 방문을 했습니다.

2월 둘째 주로 7기 ITCM이 마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창조과학선교회 김무현 박사님,

이동용 박사님, 김명도 박사님, 조희천 강사 등이 직접 ITCM에 오셔서 해양공학, 천문학, 언어학, 지구물리학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강의를 해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TCM 학생들이 그동안 받은 훈련으로 이 진화론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번 ITCM도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 CGN-TV 창조과학과 세계관 방송 종료

이재만 선교사가 CGN-TV에서 45분간 10개의 주제로 매주 진행한 방송이 지난 1월 종료했습니다. 인류의 기원, 종의 기원, 노아홍수 전기, 노아홍수 후기, 노아 방주, 지구의 나이, 창세기 1장, 진화의 반대, UFO, 성경을 믿는 과학자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청은 CGN-TV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창조과학2 그룹스터디

이만교회 다음세대에게 창조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창조과학그룹스터디가 다섯 번째 모임을 가지며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관 전쟁,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노아홍수, 빙하시대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교회학교 초등부에게 창조과학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일들이 이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7차 유학생탐사



# 창조과학탐사

간증 / 꿈의학교 월드 리더스쿨  
7/28-8/2, 2015



이번 탐사를 통해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기 계신 분을 아는 자,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닌 마음으로 보는 자,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이고 싶습니다. - 윤혜란 <한솔교회>

이곳에서 저의 기대 이상으로 성경에서 픽션으로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하시며 역사하시는 사실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이원경 <안산동산교회>

나는 중리다. 한국에서는 중리령이라한다. 그 만큼 말도 안듣는다. 하지만 이제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 마음이 달라졌다. 정말 좋은 강의 기뻐강의였다. - 박은서 <은혜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성경이라는 것과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댓가를 지불해야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게 귀중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윤지영 <꿈이있는교회>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이유로 노아 홍수사건을 판타지 소설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 탐사를 하며 노아홍수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 설승현 <다음세대교회>

저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 선교사님처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가인의 아내 이야기는 진짜 감사해요. 많이 궁금했거든요. - 최혜영 <월드리더스쿨>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진화론이 자리잡고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화론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창조론을 펴뜨리고 싶다. - 정여원 <온누리교회>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http://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3/5-6    | 창조과학세미나 (성광교회), 이재만, 한국    |
| 3/13     | 아름다운교회 (노회성), CA           |
| 3/18-23  |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
| 3/27     | LA온누리교회 (노회성), CA          |
| 3/28     |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회성)            |
| 4/2      |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
| 4/4      | 창조과학그룹스터디 (이재만)            |
| 4/5-12   | 창조과학탐사 (서울충신교회), 이재만       |
| 4/25-27  | 창조과학탐사 (동부사랑의교회), 이재만      |
| 4/25     |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회성)            |
| 5/2-10   |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
| 5/13-19  |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
| 5/14     |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회성)            |
| 5/19-26  |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
| 5/28-30  | 창조과학탐사 (ANC온누리교회), 이재만     |
| 5/31-6/8 | 창조과학탐사 (전주동은교회), 이재만       |
| 6/8-13   |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교수), 이재만      |
| 6/20-23  | 창조과학탐사 (예수인교회EM), 김선욱      |
| 6/22-29  | 창조과학탐사 (햇빛트리니티 CEO스쿨), 이재만 |
| 6/25-27  | 창조과학탐사 (KIBI America), 김낙경 |
| 7/3-10   |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후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